

시라카미 산지 세계유산센터 (후지사토관)

세계유산센터 후지사토관은 시라카미 산 아키타 쪽에 있는 비지터 센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 산지에 관한 정보 수집과 활동의 거점이기도 합니다.

1993 년 시라카미 산지의 원생지역 16,971 헥타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너도밤나무 원생림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그중 4,300 헥타르 이상이 아키타현에 있으며, 나머지는 북쪽으로 아오모리현까지 펼쳐져 있습니다.

1998 년 개관한 후지사토관에서는 시라카미 산지의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지형, 동물, 식물에 대해 일본어와 영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. 센터에는 전시물과 지역에 대한 영어 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. 또한, 하이킹 코스와 지역 명소, 체험형 액티비티, 특별 이벤트에 관한 지도와 팸플릿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영어가 가능한 가이드는 하이킹 투어를 안내하거나 체험형 액티비티 참가를 준비하거나 산 방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.

입장료는 무료이며, 개관시간은 3 월부터 11 월까지는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이고, 화요일(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수요일)은 휴관합니다. 12 월부터 2 월까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이고, 월요일과 화요일(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수요일까지 휴관)은 휴관합니다.

오시는 길 : 세계유산센터는 후타쓰이역에서 차로 약 20 분 소요되며, 현도 317 호선 도로변에 있습니다.